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행동으로서의 글쓰기

<국문요약>

비행사-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실존주의자, 초현실주의자, 세나리스트, 발명가로서 비행 경험과 내면 성찰을 행동으로서의 글쓰기로 실현하는 비행사-작가의 운명을 선택하였다. 생텍쥐페리에게는 행동과 글쓰기가 하나였으며, 그의 문장이 곧 그의 행동이었다. 그는 문학을 위한 문학을 증오했다. 그는 비행 중 위험을 무릅쓰고 감행한 것만 쓰면서 비행사의 의무를 실천했다. 그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정신적 회열이 아닌 오늘의 진실을 전하는 새로운 언어를 제공하려 노력하였다.

생텍쥐페리의 행동으로서의 글쓰기 목표인 새로운 언어 탐구는 고전 물리학의 중력 법칙(loi de la gravitation)을 보편화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loi de la gravitation universelle)’처럼 다양한 모순들을 단순화 하려는 노력이다. 그에게 진실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을 추출하는 언어를 의미한다. 그는 모순과 대립을 별개로 보고 타인의 진실을 포용하지 않는 대립을 경고한다. 각자의 이데올로기가 모두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증명된다 해도 이들 간의 대립은 끝나지 않아 인간의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행동과 글쓰기를 동일시한 생텍쥐페리의 문학은 곧 새로운 언어의 의식이었다. 그러므로 문학의 바탕을 이루는 언어 문제는 생텍쥐페리의 경우, 늘 진실 혹은 단순화의 의식으로서 제기되었다. 언어는 단순히 표현 수단이 아니며, 언어로 말하는 글쓰기는 단순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언어를 말하는 것은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하여금 자신을 성찰의 세계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며, 나아가 역사의 깊이 속으로 자신을 들어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행동의 글쓰기로 비행사-작가의 의무를 다한 생텍쥐페리는 오늘을 사는 인간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의 창조를 제안하고 있다.

핵심어 생텍쥐페리, 행동, 글쓰기, 언어, 진실

1. 서론
2. 행동으로서의 글쓰기를 이루는 요소들
3. 행동으로서의 글쓰기를 통한 새로운 언어 탐구
4. 행동으로서의 글쓰기의 진실과 오류
5. 결론

1. 서론

비행사 앙투안 드 마리 로제 드 생텍쥐페리(Antoine Marie Roger De Saint-Exupéry)의 글은 문인의 작품 성격을 넘어 시대를 앞서간 행동하는 지식인의 다양한 정신세계를 드러내 보인다. 대표작 『어린 왕자 le Petit Prince』를 위대한 실존주의 저술로 평가한 마틴 하이데거와¹⁾ 생텍쥐페리를 누구보다 앞선 “인간에 대한 비전을 지닌 실존주의자”²⁾로 상정한 사르트르처럼 많은 문인과 철학자들이 그의 사유의 현대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어린 왕자』의 영역본 편집자이자 『야간 비행 Vol de Nuit』과 『인간의 대지 Terre des Hommes』의 영역자인 슈프리(F.

1) Michel Autrand, *Notice du Petit Prince* in *Œuvres complètes* II,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99, p. 1355.

2) Michel Quesnel, *Saint-Exupéry ou la vérité de la poésie*, Plon, 1964, p. 23.

A. Shuffrey)는 생텍쥐페리 문학의 선구적 자취를 자리매김하면서 작가들이 그를 인용한 경우는 많아도 전 작품을 통해 그가 인용한 글을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을 정도다.³⁾ 실제로 『야간 비행』, 『인간의 대지』, 『성채 *Citadelle*』의 내면 성찰을 담은 구절들은 메를로퐁티를 비롯한 동시대 및 후대 작가와 철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프랑스 공산당과 거리를 두던 생텍쥐페리는 초현실주의 선언을 작성한 앙드레 브르통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그 내면 성찰은 초현실주의 예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부인 콘수엘로 순신(Consuelo Suncin)은 초현실주의 화가로서 중산모를 즐겨 그렸는데 그녀의 친한 친구이자, 남편의 체스 상대인 마르셀 뒤샹을 비롯하여 다수의 초현실주의자들과 망명지 뉴욕에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아담 곱닉(Adam Gopnik)에 따르면 이들은 보아뱀 그림을 통해 일반 개체(generic object)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는 어른들의 시선을 질타한 생텍쥐페리에게 찬사를 보내고 자신들의 동인지 『미노토르 *Minator*』에 생텍쥐페리의 핸드 트레이싱을 실었다. 그는 생텍쥐페리의 보아뱀과 마그리트의 중산모와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였다.

Rene Magritte's paintings, with their very similar obsession with middle-class hats, suggest that every time you see a bourgeois derby there may be a boa constrictor inside. The X-ray of every hat reveals a boa constrictor in every head. That could be the motto of every Surrealist exhibition.⁴⁾

중산층 모자에 관한 매우 유사한 강박관념을 드러내는 르네 마그리트의 회화들은 부르주아 중산모를 볼 때마다 그 안에 보아뱀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모자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머릿속마다 보아뱀이 드러난다. 이것이 모든 초현실주의 전람회의 모토라 할 수 있겠다.

생텍쥐페리는 프랑스와 미국 영화계에도 큰 영향을 미쳐 미국 영화사 엠지엠(MGM)이 『야간 비행 *Night Flight*』(1933)을 영화로 제작하였다. 그는 레몽 베르나르(Raymond Bernard)의 『안느 마리 *Anne Marie*』 시나리오를 쓰고, 피에르 비용(Pierre Billon)의 『남방 우편기』를 각색하고 촬영에도 참여하였으며, 그의 『이고르 *Igor*』 시놉시스 작업도 도왔다. 시나리오와 소설 인세로 코드롱 시몬(Caudron Simoun) 기종의 자가용 비행기 F-ANRY를 구입하여 1935년 인도-차이나로 비행하던 생텍쥐페리는 리비아의 사막에 불시착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구출되기까지 5일 동안의 기록을 『인간의 대지』 제7장에 기록하였다. 절대 고독 속에서 느낀 내면 성찰과 진실을 통해 새로운 항공 영화 장르의 가능성을 발견한 장 르누아르는 그를 할리우드로 초대하여 『인간의 대지』 영화화 작업에 돌입하였다. 기술과 자본 문제로 비록 실현되진 못한 계획이었으나 생텍쥐페리는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내용을 녹음한 디스크를 제작하였다.⁵⁾

생텍쥐페리는 2003년 『에이비이션 위클리 *Aviation Weekly*』지가 선정한 항공 우주 분야 톱스타 100인 가운데 공동 25위에 선정될 정도로 과학계에서도 존경받고 있다. 친조부 페르낭 드 생텍쥐페리(Fernand de Saint-Exupéry) 서재의 천문학 서적을 탐독하던 생텍쥐페리는 과학 기술 분야에도 뛰어난 통찰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막스 라(Max Ras)라는 가명으로 프랑스와 미국 특허청에 11건의 특허를 제출한 엔지니어로서 “양자 이론과 상대성이론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생물학, 유전학, 물리학, 천문학, 사회학, 회화, 음악을 쉽게 설명할 줄 알았다.”⁶⁾고 한다. 『인간의 대지』에서 “나도 천문학자들처럼 천체 역학에 관한 책을 읽고 있다.”⁷⁾라고 밝히고 있듯 생텍쥐페리는 작가로서 명성을 얻은 이후에도 영국의 수학·물리학자인 제임스 호프우드 진스(Sir James Hopwood Jeans), 천

3) F. A. Shuffrey, *Antoine de Saint-Exupéry*, French Studies, Volume V, Issue 3, January 1951, p. 245.

4) Adam Gopnik, *The strange triumph of “the little prince”*, the New Yorker, April 29, 2014.

5) Antoine de Saint-Exupéry, *Cher Jean Renoir*, Collection Les Cahiers de la NRF, Série Saint-Exupéry (n° 4), Gallimard, 1999 에 시나리오가 수록되어 있음.

6) Jean-Philippe Ravoux, *Saint-Exupéry*, Bordas, 1969, p. 19. 생텍쥐페리의 외조부 에마뉘엘 드 풍스콜롬브(Emmanuel de Fonscolombe, 1810-1875)는 엑상프로방스(Aix-en-Provence) 성가대 지휘자이자 작곡가였고, 집안의 음악 교육에 힘입어 생텍쥐페리는 장 누게(Jean Nouguès, 1875-1932)의 오페라 『쿠오바디스 *Quo Vadis*』(1909)에 수 주간 출연하고, 『녹턴 8번 *Nocturne No. 8, Op. 27-2 in D flat*』을 능숙하게 연주해냈다.

7) Antoine de Saint-Exupéry, *Terre des Hommes* in *Œuvres complètes II*,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99, p. 241.

문학자 아서 에딩턴(Arthur Eddington), 양자 역학 분야의 선구자들인 막스 플랑크(Max Planck)와 하이젠베르크(Heisenberg), 루이 드 브로이(Louis de Broglie)의 저술을 탐독했다.⁸⁾ 이미 1929년부터 퀴리 부인의 제자 페르낭 올렉(Fernand Holweck)과도 친분을 맺고 물리학에 관한 대화를 자주 나누고 전투 비행 기술 개발을 위해 서로 협력했으며 지질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작크 뇌츠랭(Jacques Noetzlin)과는 핵물리학의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였다.⁹⁾ 특히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토대로 쓴 에딩턴의 저술 『과학과 보이지 않는 세계 *Science and Unseen World*』(1929)를 통해 생텍쥐페리는 마음과 그 인식 대상으로서의 세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성찰하고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어린 왕자』의 문구로 표현되어 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사유와 유럽 우주 연합(L'Agence spatiale européenne), 시테 드 레스파스(Cité de l'Espace) 등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발견된 새로운 별 '46610 베시두즈(46610 Bésixdouze)'(B612) 같은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이름을 따서 명명된 별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렇게 문학·예술·과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신세계를 토대로 글을 쓴 생텍쥐페리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의 직업인 비행과 글쓰기의 연관성을 토대로 그의 행동으로서의 글쓰기를 이루는 요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생텍쥐페리가 추구한 새로운 언어의 기능과 행동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가 왜 그토록 많은 곳을 비행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려 노력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가 발견한 진실들을 표현하는 비행사의 글쓰기 자세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전시 상황에서의 그의 동료와 인류의 고통을 함께하려는 생텍쥐페리의 연대 의식을 표현하는 고통 분담의 글쓰기를 통해 작가의 언어가 지니는 역사성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2. 행동으로서의 글쓰기를 이루는 요소들

생텍쥐페리의 다양한 정신세계와 예술 취향, 타인에 대한 존중, 비행에 대한 열정은 프로방스 명문 음악가 집안 출신 화가였던 모친 마리 부아에 드 폰스콜롬브(Marie Boyer de Fonscolombe)의 교육열에 힘입은 바 크다. 1904년 부친 장 드 생텍쥐페리(Jean de Saint-Exupéry)의 사망 이후 다섯 남매는 르 바르(le Var)의 외조모 소유 라 몰(La Môle) 성(城)과 랭(l'Ain)의 모친의 고모 소유 생모리스 드 레망(Saint-Maurice-de-Rémens) 성(城)에서 생활했다. 생텍쥐페리의 작품은 대부분 이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형제들, 가족과 친척 그리고 가정부에 대한 추억을 시원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1909년 모친의 뜻에 따라 부친의 고향 근처 르 망(le Mans)의 예수회 소속 중학교 노트르담 드 생트 크루아(Notre-Dame de Sainte-Croix)로 진학한 시절 생텍쥐페리는 작문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고 문학 소년의 꿈을 키워 갔지만, 전체 성적은 평균 이하의 수준이었다. 그는 자주 몽상에 잠겨 드는, 자유분방하고, 낯선 모험을 즐기는 기이한 학생으로 성장해 갔다.¹⁰⁾ 방학이면 그는 생모리스 드 레망(Saint-Maurice-de-Rémens) 성 부근의 비행기 완성도를 실험하는 앙베리의 앙 뷔제(Ambérieu-en-Bugey) 비행장을 즐겨 찾았고, 12세 되던 해 조종사 가브리엘 살베즈(Gabriel Salvez)와 동승한 첫 비행을 계기로 글쓰기에 비행 경험을 담아내기 시작하였다.

Les ailes frémissaient sous le souffle du soir
 Le moteur de son chant berçait l'âme endormie
 Le soleil nous frôlait de sa couleur pâle.¹¹⁾
 저녁 미풍에 날개들이 잔잔히 흔들거리고
 엔진의 노랫소리가 영혼을 달래주는데
 희미한 햇살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고 있었다.

8) Pierre Chevrier, *Saint-Exupéry*, Gallimard. 1958 cité in Laurent de Bodin de Gillembert, *le Sacre et son expression chez Saint-Exupéry*, 2006, Université Pais IV, 2006, p. 182.

9) Jean-Philippe Ravoux, *op. cit.*, p. 19.

10) Jean-Pierre Guéno, *La mémoire du Petit Prince*, Edition Jacob-Duvernet, 2009, p. 22.

11) Antoine de Saint-Exupéry, *Textes de Jeunesse* in *Œuvres complètes I*,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99, p. 6.

모친의 권유로 읽고 심취했던 보들레르의 소네 『지나가는 여인에게 *À une Passante*』의 첫 구절을 연상시키는, 반과거 의인법의 알렉상드랭 3행 시구는 이미 『어린 왕자』의 우물이 들려주는 노랫소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 경험에서 비행사의 꿈을 꾸게 된 생텍쥐페리는 오직 비행사가 되기 위해 살아갈 정도로 항공 비행에 전념하였다. 하지만 모친이 그에게 남겨준 가장 중요한 유산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배려였다. 1914년 7월 28일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해 9월 모친은 쥐라, 보즈, 알프스 전선으로 이어지는 앙베리의 역에 의무실을 설치하고 전선에서 귀환하는 부상병들을 간호하였다.¹²⁾ 모친의 헌신적 공로를 인정받아 수학하게 된 빌프랑슈 쉬르 손(Villefranche-sur-Saône)의 노트르담 드 몽그레(Notre-Dame-de-Mongré) 예수회 중학교와 스위스 프리부르(Fribourg)의 마리아 수도회가 운영하는 콜레주 빌라 생장(Villa Saint Jean)에서 애독한 발자크, 보들레르, 도스토옙스키 작품들이 그의 세계관에 크게 영향을 끼쳐 타인의 고통에 대한 배려를 스스로 실천하는 글쓰기로 생을 마감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1919년 무렵 해군사관학교 입시 시절 자신에게 앙드레 지드를 소개해 준 당이모 이본 드 레트랑쥬(Yvonne de Lestrangle)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 대가의 글쓰기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¹³⁾

비행사를 꿈꾸던 문학청년 생텍쥐페리는 1921년 스트라스부르 제2 비행연대 이등병 지상병으로 입대하였으나 부대 내 비행과 교육은 이미 중단된 상태였다. 생텍쥐페리는 어렵게 가정을 꾸려가는 모친이 아들의 간청을 거절하지 못 하고 지불한 고액 수업료 덕분에 사설 항공 교육 기관에서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1922년 모친에게 보낸 감사의 편지에도 “비행기 엔진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어요. 얼마나 감미로운 음악인지 몰라요.”¹⁴⁾라며 자신이 그토록 조종을 원하고 있었음을 비치고 있다. 이후 모로코에서 본격적으로 조종술을 연마한 그는 민간인으로 돌아와 아에로포스탈(Aéropostale)의 전신 라테코에르(Latécoère)를 거쳐 에어프랑스(Air France)에서 근무하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다시 군에 복귀하였다. 1944년 7월 31일 지중해 정찰 업무 수행 중 전사할 때까지 그가 남긴 글들은 대부분 몸과 마음을 다한 비행 체험의 산물이었다. 생텍쥐페리가 남긴 다음과 같은 인터뷰가 이를 입증한다.

Pour moi, voler ou écrire, c'est tout un. L'important est d'agir et de faire le point en soi-même. L'aviateur et l'écrivain se confondent dans une égale prise de conscience.¹⁵⁾

나에게는 비행이나 글쓰기나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현상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비행사와 작가는 서로 혼연일체가 되어 동일한 각성에 이른다.

생텍쥐페리는 “그대는 그대 행동 자체에 존재한다. 그대 행동이 바로 그대다.”¹⁶⁾ 라고 말 할 정도로 직접 체험한 생생한 비행에 대한 각성을 글로 표현했다. 생텍쥐페리는 자신의 소신대로 우편물 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새로운 항로를 개발하고, 신개발 비행기를 시험 운전하고, 새로운 공격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적진에서의 저공 정찰 비행 임무 수행 중 겪은 사고로 대수술과 회복기를 여섯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시대의 새로운 직업과 도구를 다루는 문학을 시도하였다. “생텍쥐페리가 우리에게 길을 열었다. 비행사로서는 비행기가 인식 기관임을 보여준 것이다.”¹⁷⁾ 라고 말한 사르트르의 표현처럼, 생텍쥐페리에게 비행기는 단지 글쓰기 소재나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생텍쥐페리의 몸 자체였으며 그의 비행은 곧 그 존재 자체였다. 일상의 권태를 벗어나기 위해 비상과 착륙을 끝없이 반복한 비행사 생텍쥐페리는 “오직 말 속에서, 행동을 옮기는 명백한 어휘 속에서, 꿈의 날개를 위해 반복한 비상과 착륙만큼이나 다양한 활주로서의 자신의 글”¹⁸⁾에서 존재의 근거를 발견한 것이다. 생텍쥐페리는 『성

12) Frédéric D' Agay, Jean-Daniel Pariset, *Album Antoine de Saint-Exupéry*,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94, p. 32.

13) Antoine de Saint-Exupéry, *Lettres à Yvonne de Lestrangle* in *Œuvres complètes I*,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99, p. 817.

14) Jean-Pierre Guéno, *op. cit.*, p. 79.

15) *Ibid.*, p. 79.

16) Antoine de Saint-Exupéry, *Le Pilote de Guerre* in *Œuvres complètes I*,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99, p. 191.

17) Jean-Paul Sartre, *Situation de l'écrivain en 1947* in *Qu'est-ce que la littérature?* Gallimard, 1948, p. 237 : “Saint-Exupéry nous a ouvert le chemin, il a montré que l'avion, pour le pilote, est un organe de perception.”

18) Jean-Pierre Guéno, *op. cit.*, p. 80.

채』에서 말하듯 ‘자신의 문장이 곧 자신의 행동’이었음을 잊지 않으려 행동으로서의 글을 쓰려고 노력했다.¹⁹⁾ 생텍쥐페리는 이 행동이 직업이 요구하는 일의 실천으로 드러나며 작가의 소명인 글쓰기 역시 일에 근거하여 실천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1942년 4월 9일 라 프레스(La Presse) 지와의 인터뷰에서 생텍쥐페리는 작가와 직업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J'ai l'horreur de la littérature pour la littérature. Pour avoir vécu ardemment, j'ai pu écrire des faits concrets. C'est le métier qui a délimité mon devoir d'écrivain.²⁰⁾

나는 문학을 위한 문학을 증오한다. 간절하게 살아온 나이기에 구체적인 사실들을 쓸 수 있었다. 작가로서 나의 의무를 규정한 것은 나의 직업이다.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간파한 ‘문학을 위한 문학’은 간절한 삶의 문학이 아니다. 생텍쥐페리는 ‘즐거기 위해서 글을 쓰거나 꾸며내려는 사람들’²¹⁾의 문학에 반대했다. 그에게 글쓰기는 존재 근거이며 주관주의를 떠나 행동의 문학으로서 직업과 구체적 사실들에 의거한다. 그러므로 비행을 통해 세계를 인식한 생텍쥐페리에게는 비행이 글쓰기에 선행한다. 실제로 그는 비행 중 위험을 무릅쓰고 감행한 것만 쓰려고 노력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일상을 묘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글을 쓴 만큼 독자들이 자신의 글에서 내면의 진실을 발견해주길 원했다. 상투적인 것 혹은 충격을 주거나 상상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문장을 피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자신의 삶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추상적 주관주의, 정숙주의, 상투적 선동성을 벗어나 구체적 행동에 근거한 현실성을 추구한 생텍쥐페리는 온몸으로 글을 써갔다. 그에게 비행사와 작가는 동일한 인식 안에서 하나가 되고, 비행과 글쓰기 역시 동일한 행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생텍쥐페리에게 글쓰기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수단 아니라 새로운 인간 의식을 위한 건설 행위였다. 동시대 문인들과 달리 그는 글을 통해 행동을 이끌어 낸 것이 아니라 글쓰기로 행동을 실천하였다. 생텍쥐페리는 언제나 연대감과 평화를 위한 행동에 뛰어 들었고, 행동에 따른 명백한 글쓰기로 행동을 이어갔다. 인류애적 연대 의식의 발로로서 그의 글쓰기는 그 자체로 인류의 고통을 나누는 평화 행위였다.

그는 아름답고 세련된 수사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의 글쓰기는 그의 삶의 원칙으로서 위선과 무지와 자기중심주의에 맞선 저항이었다. 아름다움의 매력만으로 현실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적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고 전쟁과 계급투쟁, 기아와 불평등 등 세계 곳곳의 여러 모순을 경험한 비행사-작가는 누구나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신적 회열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찰이 필요한 오늘의 진실을 새로운 언어로 제공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 문명 시대의 정신적 특성을 포착하려는 현대성의 작가가 스스로 짊어진 의무였다.

3. 행동으로서의 글쓰기를 통한 새로운 언어 탐구

생텍쥐페리의 행동으로서의 글쓰기는 인질 협상가, 항공 노선 탐사가,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 특파원, 스페인 내전 리포터로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그의 현실 참여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기술 문명의 발전이 낳은 새로운 무기 개발로 벌어진 불행한 사건들, 이로 인한 종교적·이데올로기적 대립을 경험한 생텍쥐페리는 그의 글쓰기를 통해 불필요한 대립과 희생을 피하고자 다양한 주체들 간의 모순들을 포용하는 새로운 언어 정립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무엇보다 그는 기술 문명 시대의 새로운 현실과 기존 언어의 관계를 성찰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술 문명의 발전에 따른 노동과 관습, 인간관계가 변한 오늘의 현실을 말하면서 어제의 현실을 위해 정립된 언어를 사용한다. 어제의 삶이 우리의 본성에 더욱 잘 상응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 하나의 예로 첨단 기계와 인간을 대립시키는 예를 들 수 있다. 인간의 감성을 메마르게 하는 기계라는 선입견 속에

19) Antoine de Saint-Exupéry, *Citadelle CXXXVI* in *Œuvres complètes II*,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99, p. 650.

20) Jean-Pierre Guéno, *op. cit.*, p.83.

21) *Ibid.*, p. 188(*Lettres à Mari*, 1924)

형성된 기계에 대한 반감도 하나의 진실이며, 장애인에게 유용한 기계를 호감 어린 시선으로 반기는 것도 하나의 진실이다. 기술 문명에 대한 반감과 우려라는 각자의 진실들은 대립하지 않는다. 언어로 드러난 반감과 호감은 대립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의 모순일 뿐이다. 생텍쥐페리는 어떤 진실을 주장하더라도 저마다 삶과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 일관성이 유지된다면 서로 다른 진실들은 대립하지 않고 모순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와 전체가 맺는 보편적 조화를 질서라고 정의하고, 새로운 시대의 모순들을 포용하는 새로운 질서를 표현하는 언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Mon ordre c'est l'universelle collaboration de tous à travers l'un, et cet ordre m'oblige à création permanente. Car il m'oblige à fonder ce langage qui absorbera les contradictions.²²⁾

나의 질서는 하나를 통해 전체와 맺는 보편적 협력이다. 그리고 이 질서가 내게 영속적 창조를 강요하고 있다. 모순들을 흡수할 그런 언어를 창조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삶 자체는 명확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모호하기만 한 것도 아니며, 모순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일관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너무 복잡한 삶의 현상은 이러한 구분을 초월한다. 이러한 삶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거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명확하게 하거나 모호하게 하고, 다양하게 하거나 결합하는 것은 언어이다. 서로의 진실이 충돌하는 경우, 자신의 진실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공동의 접점에서 하나의 진실을 추출하여야 한다. 진실은 유일한 것이 아니기에 서로의 진실들이 명확하면서도 완전한 모순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더욱 포용적인 언어로 대체하는 일 외에 달리 해결 방도가 없다. 여기에서 삶의 모순들을 흡수하는 새로운 언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성과 추론을 추종하는 자들의 이데올로기가 모두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증명된다 해도 이들 간의 대립은 끝나지 않아 인간의 평화를 위협할지도 모른다. 논쟁을 증오한 나머지 논쟁을 인류 최악의 형벌로 규정한 생텍쥐페리는 연대 의식의 실현을 위해 서로 도우며 타인의 진실을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Je te déconseille donc la polémique. Car elle ne mène à rien. Et ceux qui se trompent en refusant tes vérités au nom de leur propre évidence, dis-toi qu'ainsi, au nom de ta propre évidence, si tu polémiques contre eux, tu refuses leur vérité.²³⁾

그러므로 나는 논쟁을 권하지 않는다. 논쟁은 허무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명백함을 들먹이며 그대의 진실들을 거부하는 오류를 범하는 이들과 논쟁을 벌인다면, 그렇게 그대는 그들의 진실을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하라.

생텍쥐페리는 사람들을 우파와 좌파, 꼬추와 꼬추 아닌 자, 파시스트와 민주주의자로 정리할 수도 있으며, 또 이러한 구분을 비난할 수도 없다고 믿었다. 생텍쥐페리는 천동설과 지동설의 관계를 예로 들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오류라기보다는 불완전한 이론이며 그의 세계관으로는 만물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출현하였다고 설명한다. 지동설 역시 오류를 드러내자 실용적 반사망원경을 발명한 뉴턴이 좀 더 보편적인 중력의 법칙(law of gravitation)을 담은 언어를 확립하여 그 오류를 수정하고 자신의 이론에 통합시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원자와 성운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의 신성에 가까운 방정식”²⁴⁾을 연구하는 물리학자처럼 말이다.

Newton n'a point "découvert" une loi longtemps dissimulée à la façon d'une solution de rébus, Newton a effectué une opération créatrice. Il a fondé un langage d'homme qui pût exprimer à la fois la chute de la pomme dans un pré ou l'ascension du soleil.²⁵⁾

22) *Citadelle* CLXXV, pp. 441-442.

23) *Ibid.*, XLVII p. 485.

24) *Terre des Hommes*, p. 281

25) *Ibid.*, p. 278.

뉴턴은 수수께끼를 풀듯이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법칙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창조적 실험을 감행한 것이다. 그는 풀밭으로의 사과와 추락과 태양의 상승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인간 언어를 확립한 것이다.

프랑스의 국립 중앙 문서 및 사전 자료실(CNRTL, Centre National de Ressources Textuelles et Lexicales) 온라인 사전의 'gravité(중력)' 항목은 1200년 이 단어가 고어 형태로는 'graviteit'로 'sérieux, réfléchi'를 의미하였고, 1377년에는 'gravité'로 정착되어 'pesanteur' 의미로 사용되어 오다 1644년 'exercer un poids de pression'의 의미로 변화해 온 과정을 보여준다. 중력이란 단어가 뉴턴의 고전 물리학,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하이젠베르크의 양자 역학으로 진행되며 개념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언어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뉴턴이 중력을 발견한 것은 아니다. 뉴턴이 발견한 것은 중력이 보편이라는 사실이다. 즉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힘이나 지구를 태양 주위로 돌게 하는 힘들이 모두 같은 종류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텍쥐페리의 새로운 언어는 신조어가 아닌 좀 더 보편성을 지닌 새로운 의미를 포함한 보편 언어이다. 중력의 법칙을 새로운 만유인력의 법칙(law of universal gravitation)으로 부르게 되었지만, 사과와 추락과 태양의 상승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보편적(universal) 언어를 확립한 것이지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생텍쥐페리는 우리에게 말에 대한 형이상학적 사유를 떠올리는 다음과 같은 역설적 표현으로 새로운 언어의 본질을 일깨워 준다.

Si je trouve une formule qui m'exprime, qui me rassemble, pour moi ce sera vrai.²⁶⁾

나를 드러내면서, 나를 모으는 표현을 발견한다면 나에게서 그것이 진실이리라.

생텍쥐페리는 뉴턴의 업적을 새로운 질서를 재현한 언어 창조로 정의하였다. 새로운 언어로서의 뉴턴의 중력에는 천동설과 지동설과 만유인력 개념의 보편화 과정이 담겨 있다. 따라서 새로운 언어란 곧 다양한 모순들을 단순화한 결실이다. 생텍쥐페리는 이전까지의 모순된 개념들을 한데 아우르는 뉴턴의 만유인력처럼, 복잡한 현실의 다양한 구분을 단순화하여, 보편적인 것을 추출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을 진실로 상정하며 "진실이란 결코 증명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단순명료하게 만드는 그 무엇"²⁷⁾으로 결론 내린다. 결국 행동으로서의 글쓰기의 진실은 보편적인 것을 추출하는 언어 기능에 있다.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업적은 이 보편성을 담은 새로운 언어를 찾아낸 데 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듯이 사회 곳곳에 여러 모순이 공존한다. 새로운 언어 역시 모순을 완화하고 보편성을 추출하는 일종의 단순화 작업이다. 생텍쥐페리가 단순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어내려 한 것은 다름 아닌 모순의 해결이었다. 『어린 왕자』를 헌정 받은 레옹 베르트 역시 생텍쥐페리를 가장 존중한 친구답게 새로운 언어의 기능을 이렇게 요약하였다.

L'homme ne résout les contradictions que par le nouveau langage. Il en est contradiction de la société comme de celles de la science. Le nouveau langage est une simplification.²⁸⁾

인간은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만 모순을 해결한다. 과학에 모순들이 존재하듯 사회에도 모순이 존재한다. 새로운 언어란 단순화이다.

모순을 해결하는 언어를 구하고자 생텍쥐페리는 현재의 언어들에 보편적인 질서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학자들의 연구를 깊이 성찰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점진적으로 최선의 '현실적' 언어를 찾아내리라 확신하고, 시간이 흐르면 오류로 판명 날 수도 있는, 과학에서 터득한 언어 개념의 경험을 글쓰기에 적용하였다.²⁹⁾ 이제 새로운 언

26) Antoine de Saint-Exupéry, *Courrier Sud* in *Œuvres complètes I*,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99, p. 77.

27) *Terre des Hommes*, p. 278.

28) Léon Werth, *Saint-Exupéry, tel que je l'ai connu*, V. Hamy, 1994, p. 18.

29) Cf. Antoine de Saint-Exupéry, *Carnets* in *Œuvres complètes I*,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99, p. 467.

어로 모순을 해결하는 작가에게 명사로서의 언어는 단순화라는 동사의 의미로 다가온다. 생텍쥐페리의 언어는 피동적 심리 상태의 전달이 아니라 능동적 단순화 노력의 산물이다. 언뜻 생텍쥐페리의 행동으로서의 글쓰기의 잠언적 명구들이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것은, 생텍쥐페리의 문학을 위한 문학에 대한 항변의 목소리만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러한 목소리 속에 단순화로서의 형이상학적 성찰의 반향을 들려주는 데 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여기는 『어린 왕자』 역시 이러한 성찰을 담고 있어 다양한 시각의 학제간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어린 왕자』 제4장에서 비행사는 말한다.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옛날 옛적에 자기보다 좀 클까 말까 한 작은 별에 어린 왕자가 살았어요. 어린 왕자는 친구가 필요했답니다...’라고.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그는 훨씬 더 진실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나는 내 책이 아무 생각 없이 읽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³⁰⁾ 라고. 『어린 왕자』를 통해 생텍쥐페리가 구현하려 했던 것은 그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단순화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행동으로서의 글쓰기의 진실과 오류

단순화를 추구하는 행동으로서의 글쓰기를 이루는 새로운 언어는 그 무엇을 드러낼 뿐 그 무엇을 포착하지는 않는다. 이런 논리에서 행동으로서의 글쓰기의 언어는 사유 과정을 보여주지만, 사유를 반박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이 언어는 자신만의 진실을 강요하지 않으며, 자신의 진실과 모순된 진실을 포용하고 대립을 평화로 이끌고자 노력한다. 흔히 일상의 언어가 이성적 사유를 전달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을 가르치고 깨우쳐 다양한 행위로 이끄는 데 어휘로는 충분하지 않은 법이다. 이성과 추론에 따른 확고부동한 논리적 어휘로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일상의 언어로 소통은 가능하나 인간의 심리와 사물의 내면을 모두 표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은 진정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전혀 어리석지 않음을, 오히려 그들이 더욱더 현명함을 깨달아야 한다. 생텍쥐페리는 심지어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의 ‘말(mots)이 담아내지 못하는 하나의 진실’을 존중한다.³¹⁾ 말이 드러낼 수 없는 이 진실은 사람과 사람을 진실하게 맺어주는 조건이자 매 순간 인간을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 무엇이다. 생텍쥐페리는 목숨을 걸고 우편 비행기를 몰아 안데스산맥을 하강하는 친구 장 메르모즈(Jean Mermoz)의 진실을 이렇게 정의내린다.

Si vous aviez objecté à Mermoz, quand il plongeait vers le versant chilien des Andes, avec sa victoire dans le coeur, qu’il se trompait, qu’une lettre de marchand, peut-être, ne valait pas le risque de sa vie, Mermoz eût ri de vous. La vérité, c’est l’homme qui naissait en lui quand il passait les Andes.³²⁾

메르모즈가 가슴 속에 승리를 부여안고 칠레 쪽 안데스산맥 경사면을 하강하던 때, 그가 틀렸으며 아마도 상인의 편지 한 장에 목숨을 걸만한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더라면 메르모즈는 그대를 비웃었으리라. 진실, 그것은 그가 안데스산맥을 넘을 때에 자신 안에서 탄생한 인간이었다.

우편물 운송이 목숨을 걸 만큼 중대한 문제인가 물으며 비행사를 비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우편물을 기다리는 연인, 상인, 예술가를 위해 직업을 의무를 다하는 메르모즈의 영혼을 생텍쥐페리가 전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자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언어를 통해 이성과 아름다움을 제시하기보다는 동료의 영혼을 전파하려는 그의 진정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정령(Esprit)’이 점토에 숨결을 불어넣는다면, 오로지 그러한 정령만이 ‘인간(Homme)’을 창조할 수 있다.”³³⁾라는 구절로 『인간의 대지』 전체를 요약한 작가답게 생텍쥐페리는 시인과 사제의

30) Antoine de Saint-Exupéry, *le Petit Prince*, in *Œuvres complètes II*,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99, p. 246.

31) *Citadelle XXI*, p. 435.

32) *Terre des Hommes*, p. 277.

33) *Ibid.*, p. 285: “Seul l’Esprit, s’il souffle sur la glaise, peut créer l’Homme.”

영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채』의 화자 베르베르족 군주 카이드(Caid)의 결의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Voilà la vérité de l'homme. Il n'existe que par son âme. A la tête de ma cité j'installerai des poètes et prêtres. Et ils feront s'épanouir le cœur des hommes.³⁴⁾

인간의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영혼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나의 성의 가장 요충지에 시인과 사제들을 정착시키겠다. 그리고 이들은 사람들 마음에 꽃이 피어나게 할 것이다.

생텍쥐페리는 공연한 수식어로 대상을 미화할 것이 아니라 대상의 본질을 추출하고, 대상들 혹은 현상들이 내면에서 일으키는 울림을 포착하기 위한 언어를 추구했다. 그는 비행을 미화하기 위해 펜을 잡지 않았다. 비행사만의 언어의 관계망 즉 비행사만이 가능한 독특한 문체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내면에서의 울림을 보는 범부터 배우고자 노력했다. 생텍쥐페리가 드러내고자 한 것은 공허한 수사의 유희가 아닌 현상의 본질이었다. 이 때문에 생텍쥐페리는 비행사 동료들의 일상을 폭로하여 소설을 쓰는 파렴치한으로 몰렸고 1933년 에어프랑스 지원 당시 그의 명성을 시기하는 동료들의 반발에 부딪혀 이듬해에야 비로소 입사하였다. 그것도 비행업무가 아닌 홍보 담당 직원으로 말이다.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외관을 보는 성인들이 미화한 것을 외면하고, 관료 조직의 일상을 써 내려간 그는 내면을 보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한때 연인이었던 리네트(Rinette)라 불린, 고등학교 동창 베르트랑의 누이 르네 드 소신(Renée de Saussine)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산악인 친구 앙리 세고느(Henri Ségone)가 산을 묘사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불만을 표시한다.

Il ne faut pas apprendre à écrire mais à voir. Écrire est une conséquence. Lui prend un objet et cherche à remplir. Les épithètes sont des couches de peintre. Il ne dégage pas l'essentiel mais ajoute des ornements arbitraires. A propos d'une aiguille il parlera de Dieu, de la couleur mauve et des aigles. Alors vous êtes successivement grandie, attendrie et effrayée. C'est du truc. Il faut se dire "Cette impression-là comment vais-je la rendre?" Et les objets naissent de leur réaction en vous, ils sont décrits profondément. Seulement cela n'est plus un jeu.³⁵⁾

쓰는 것을 배워서 안 됩니다. 보는 것을 배워야지요. 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기는 어떤 것이지요. 그는 하나의 대상들을 선택하여 그것을 미화하려고 안간힘을 다 썼죠. 그가 즐기는 부가형용사란 그림의 표현에 색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본질을 추출해 내지 못하고 공허한 장식물들만을 첨가하고 있어요. 뽀족한 산봉우리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신과 붉은 보랏빛 빛깔과 독수리를 말하겠죠. 그러면 당신은 거대해지고 감동하여 이욕고 놀라워하겠죠. 이것은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이러한 인상을 나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고 생각해 봐야지요. 그리고 오브제들은 당신의 내부에서 그 반응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묘사된 것이지요. 단순히 장난친 것이 아니지요.

『어린 왕자』에서 사막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가르쳐준 비밀과도 같은 이 지침은 생텍쥐페리의 글쓰기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침이다. 실제로 산의 아름다움, 바다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작가라면 그가 만나는 것은 가시적 산과 바다를 초월한 그 이상의 무엇이다. 왜냐하면 그는 내면에 도달하기 위해 사물과 단어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그의 언어는 영혼이며 그의 언어가 의미를 지닌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의 영혼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가 보는 석양이 그를 감동하게 한다면, 그 석양은 거대한 우주를 향해 열린 창문이다. 왜냐하면 단지 그날의 석양이 아니라 모든 석양이 그에게 울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가 즐기던 석양이 그러하다. 어린 왕자는 우리

34) *Citadelle*, XXI, p. 437

35) *Lettres à Rinette* in *Œuvres complètes* I,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99, p 787.

를 이끌기 위한 하나의 지팡이일 뿐이다. 『어린 왕자』의 소행성 B612의 웃음소리를 듣는 비행사가 어린 왕자의 별의 웃음소리를 통해 밤하늘 모든 별의 웃음소리를 듣듯이.

생텍쥐페리에게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마음의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진실은 갑자기 발견한 법칙이 아니라 서서히 나무를 키워내는 것과 같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배척하면서까지 진실을 추구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행동으로서의 글쓰기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결과이듯 진실이란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며 이루어진다. 창작력 부족을 탓하거나 뛰어난 내세울 일도 아니다. 창작 역시 오류와 오류를 거듭하며 이루어진다. 또한 내가 오류라 여기는 다른 진실을 배척하거나 나의 진실을 강요할 수도 없다. 오류와 진실을 대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Et ce qui n'est point vérité est erreur, et ce qui n'est point erreur est vérité. Mais moi, qui sais bien que l'erreur n'est point le contraire de la vérité mais un autre arrangement, un autre temple bâti des mêmes pierres, ni plus vrai ni plus faux mais autre, les découvrant prêts à mourir pour des vérités illusoires, je saignais dans mon cœur.³⁶⁾

진실이 아닌 것은 오류이고 오류가 아닌 것은 진실이다. 그런데 오류는 진실의 대립어가 아니라 또 다른 질서, 같은 돌들로 지어진 또 다른 사원이며, 진실도 오류도 아닌 다른 것임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가공의 진실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된 그들을 발견하고 마음속으로 피를 흘린다.

이러한 오류와 진실들에 관한 성찰은 러시아 인민의 아버지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와 프랑코 장군이 주도한 쿠데타로 내란에 빠진 스페인을 취재한 생텍쥐페리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도스예프스키의 열렬한 독자였던 생텍쥐페리는 1935년 상당한 기대 속에 모스크바를 취재하며 스탈린의 전체주의가 지닌 부정적 양면성을 간파하였다. 또한 1936년 2월 스페인 총선에서 좌파 연합인 인민전선이 승리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프랑코 장군이 7월에 일으킨 쿠데타로 3년간 지속한 스페인 내전을 취재하며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였다. 여기서 그는 사람들이 서로의 진실을 얼마나 존중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성찰하였다. 스페인과 독일의 대중들은 위선적 정치 지도자의 가공의 진실에 속아 서로의 오류를 용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제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오직 정권 장악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도당들에 환멸하여 돌아간 프랑스 정부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국 국가보다는 정당을 우선시하는 정치 상황 속에 프랑스 정부는 1939년 9월,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 무려 8개월간의 오랜 휴지 기간을 거쳐 독일군은 병력을 확보하고 장비를 증강하지만, 논쟁만 벌이던 프랑스 측은 아무런 조치 없이 독일 침공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독일 공군의 공습으로 많은 피난민이 희생되는 것을 본 생텍쥐페리는 예비군 중대장으로 재입대하여 툴루즈와 오르콩트(Orconte), 마르세유와 보르도와 알제에서 경찰 임무를 수행하였다. 1940년 6월 휴전 협정이 체결되어 제대하였을 때는 대부분의 전우들이 전사한 상태였다. 제대 후 손아래 누이 가브리엘 드 생텍쥐페리(Gabrielle de Saint-Exupéry)가 살던 아게(Agay)에서 『성체』 집필에 전념하였지만 언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행동으로서의 글쓰기를 실천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전시 하의 프랑스 상황을 명확히 판단한 생텍쥐페리는 미국의 참전만이 프랑스 해방을 앞당기는 길이라 결론내리고 『야간 비행』과 『인간의 대지』를 높이 평가한 미국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망명선에 오르게 된다. 몸으로 쓰는 글쓰기를 실천하기 위함이었다.

5. 결론

시인이자 문학평론가, 미술평론가, 평화주의자였던 유대인 레옹 베르트는 피레네로 피신하여 쓴 단편집 『33일 33 jours』에서 독일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프랑스 정부를 '매트리스 왕국(Royaume du Matelas)'으로 풍자하였다. 당시 드골은 영국으로 망명하여 자유 프랑스(La France Libre)를 조직하여 프랑스인들의 대독 투쟁을 독려하고

36) Citadelle, XIII, p. 413.

있었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비시 프랑스(Vichy France) 정부가 생텍쥐페리를 요직에 임명되자 드골이 자신의 권력욕을 경고한 생텍쥐페리를 친독일 인사로 호도하였다. 그는 조국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으나 미국의 참전을 호소하기 위해 미국 망명을 선택하였다. 스페인 내전 취재 당시 공화파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스페인 통과를 거절당한 생텍쥐페리는 알제(Alger)를 경유하여 리스본에 도착하여 간신히 미국행 배에 오른다. 거대 폭력 나치와 정권욕 강한 드골의 자유 프랑스, 괴뢰 정권 비시 정부의 공동의 적으로서 그는 단신으로 미국의 참전을 유도하였지만, 미국은 그를 불편만 가득한 이방인으로 치부할 뿐이었다. 이제 생텍쥐페리는 고통의 분담이라는 언어로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단순화하며 몸으로 쓰는 글쓰기를 다짐한다.

Nul, actuellement, n'est en droit d'écrire un seul mot s'il ne participe complètement aux souffrances de ses camarades humaines. Si je ne résistais pas avec ma propre vie, je serais incapable d'écrire. Et ce qui est vrai pour cette guerre doit réster vrai en toutes choses. Il faut servir l'idée chrétienne du Verbe qui se fait Chair. L'on doit écrire mais avec son corps.³⁷⁾

지금으로서는, 인간적인 친구들의 고통에 철저히 동참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단 한 마디조차 쓸 권리를 누리지 못하리라. 나 자신의 삶을 걸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나의 글쓰기는 요원해지리라. 이 전쟁에 관한 진실한 것은 모두 진실로 남아야 한다. 육신이 되는 말씀이라는 기독교의 정신을 섬겨야 한다. 글을 써야 한다. 하지만 몸으로 말이다.

망명지 미국에서 레옹 베르트에게 헌정한 『어린 왕자』 서문에서 “이 어른은 지금 프랑스에서 굶주린 채 추위에 떨며 살고 있다. 이 어른을 위로해주어야 한다.”며 고통 받는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글쓰기는 “이성과 동기와 아름다운 추론”³⁸⁾으로 다수를 속인, 보아뱀 속의 코끼리가 암시하는 거대 다수인 나치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고통을 나누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었다. 그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전투를 글쓰기로 이어갔다. 그에게는 펜이 비행기와 다름없었다. ‘비시 프랑스’와 ‘자유 프랑스’ 모두 이 망명객을 비난했으나 프랑스 내의 레지스탕스들은 『전시 조종사 *Pilote de Guerre*』를 프린트하여 은밀히 돌려 읽었다. 맹목적 다수에 짓밟히지 않기 위해, 이해받지 못한 화가도 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이비처럼 보이는 학자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싸워야 하듯이 불행을 낳는 모든 가공의 진실과 싸워 고통을 종식해야 한다는 역사의 식은 글쓰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시인이자라면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쓰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생텍쥐페리는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자신이 싸우는 이유를 이렇게 호소하였다.

Nous nous battons pour tous les pères du monde, et pour tous leurs fils. Pour que la table familiale soit baignée de tendresse sûre. Pour que les fils ne vendent pas leur père au caporal de leur parti. Pour que les amis ne trahissent pas. Et pour que celui-là qui est faible, protégé par le code, protégé par la convention universelle, puisse conserver ses vêtements malgré qu'il ne puisse pas les défendre.³⁹⁾

우리는 전투 중이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이들의 모든 아들을 위해. 가족의 식탁이 신뢰와 사랑으로 넘칠 수 있도록, 아들자식들이 아버지를 그들 정당의 하사에게 팔아넘기지 않도록. 벗들이 배신하지 않도록. 그리고 몸이 약하고, 법의 보호를 받고, 협약의 보호를 받는 자가 자신의 옷가지를 지킬 수 없어도 그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미국의 참전 이후 생텍쥐페리는 『뉴욕 타임 매거진 *The New York Times Magazine*』에 프랑인들의 화해를 호소하는 글을 발표하였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프랑스인들의 비난뿐이었다. 프랑스인들의 지적 판단력에 크게 실망한 그는 매우 어려운 행정절차를 거쳐 1944년 5월 이탈리아 사르데냐(Sardegna)의 알게로(Alghero)에 진주한 자신

37) Interview à Dorothy Thomson, *New York Tribune*, 7 juin 1940 in Jean-Pierre Guéno, *op. cit.*, p. 93.

38) *Citadelle*, LXVII, p. 519.

39) *Lettre aux Américains* in Jean-Pierre Guéno, *op. cit.*, p. 159.

의 옛 부대 2/33 정찰대로 복귀하였다. 미국을 떠나기 직전 부인 콘수엘로 순신에게 쓴 편지에서도 “나는 전사하러 떠나지 않소. 고통 받기 위해 그리고 내 사람들과 교감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지.”⁴⁰⁾라며 고통을 나누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생텍쥐페리의 글쓰기는 새로운 언어의 창조를 통한 행동의 글쓰기로 세상 모든 불행한 자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스스로 택한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다. 모순을 흡입하는 언어로는 자신의 의도대로 프랑스인들의 정치 논쟁도 종식하지 못하였지만, 비행사·작가·전사·과학자·발명가로서 생텍쥐페리는 그 시대 어느 작가도 감히 경험할 수 없는 현대적 언어 모험을 시도했다.

행동과 글쓰기를 자신의 존재 근거로 삼았던 비행사·작가 생텍쥐페리, 행동을 언어와 동일시한 생텍쥐페리의 문학은 곧 새로운 언어의 의식이었다. 문학이 새로운 언어의 의식이듯 궁극적으로 오늘의 현상으로서의 역사 또한 새로운 언어의 의식이었다. 그러기에 문학의 바탕을 이루는 언어 문제는 생텍쥐페리의 경우 늘 진실 혹은 단순화의 의식으로서 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서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언어는 단순히 표현 수단이 아니며, 언어로 말하는 글쓰기는 단순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다. 언어를 말하는 것은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하여금 자신을 성찰의 세계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며, 나아가 역사의 깊이 속으로 자신을 들어서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행동의 글쓰기로 비행사·작가의 의무를 다한 생텍쥐페리는 오늘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의 창조를 제안하고 있다.

참고 문헌

생텍쥐페리 작품

- Antoine de Saint-Exupéry, *Citadelle*, folio, Gallimard, 1948.
 Antoine de Saint-Exupéry, *Œuvres complètes* I, II,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99.
 Antoine de Saint-Exupéry, *Cher Jean Renoir*, Collection Les Cahiers de la NRF, Série Saint-Exupéry (n° 4), Gallimard., 1999.
 Antoine de Saint-Exupéry, *Wind, Sand, and Stars* translated by Lewis Galantière Reynal & Hitchcock, 1940.

연구와 비평

- Frédéric D' Agay, Jean-Daniel Pariset, *Album Antoine de Saint-Exupéry*,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94.
 Emmanuel Chadeau, *Saint-Exupéry*, Perrin, 2000.
 Luc Estang, *Saint-Exupéry, écrivains de toujours*, Seuil, 1978.
 Curtis Gate, *Antoine de Saint-Exupéry His Life and Times*, Paragon House, 1990.
 Laurent de Bodin de Gillembert, *le Sacre et son expression chez Saint-Exupéry*, 2006, Université Pais IV, 2006.
 Adam Gopnik, *The strange triumph of “the little prince”*, the New Yorker, April 29, 2014.
 Jean-Pierre Guéno, *La mémoire du Petit Prince*, Edition Jacob-Duvernet, 2009.
 Paul Meunier, *La philosophie du Petit Prince ou le retour à l'essentiel*, Le Petit Philosophe, 2013.
 Michel Autrand, *Notice du Petit Prince* in *Œuvres complètes* II,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99.
 Michel Quesnel, *Saint-Exupéry ou la vérité de la poésie*, Plon, 1964.
 Jean-Philippe Ravoux, *Saint-Exupéry*, Bordas, 1969
 Jean Renoir, *Ma vie et mes films*, Champs contre-Champs, Flammarion, 1974.
 F. A. Shuffrey, *Antoine de Saint-Exupéry*, French Studies, Volume V, Issue 3, January 1951.
 Léon Werth, *Saint-Exupéry, tel que je l'ai connu*, V. Hamy, 1994.

<Resumé>

40) *Lettres à Consuello, avril 1943* *ibid.*, p. 161.

L'écriture en tant qu'action chez Antoine de Saint-Exupéry

Saint-Exupéry comme existentialiste, surréaliste, scénariste et inventeur a choisi le destin de l'écrivain-aviateur en écrivant l'expérience de vol et la réflexion intérieure de l'action. Chez lui, action et écriture ne faisaient qu'un et sa phrase était son action. Il détestait la littérature pour la littérature. Il a exercé les fonctions d'aviateur en utilisant uniquement les dangers du vol. Il a essayé de fournir un nouveau langage qui traduise la vérité du jour, pas la joie mentale qui peut être facilement obtenue.

Le nouveau langage de Saint-Exupéry est le résultat de la simplification de diverses contradictions telle que la 'loi de la gravitation universelle' de Newton qui universalisait la loi de la gravitation de la physique classique. Pour lui, la vérité n'est pas l'objet de la preuve, mais le langage de l'extraction de l'universel. Il voit la contradiction et la confrontation séparées et met en garde contre la confrontation qui n'embrasse pas la vérité des autres. Même s'il est prouvé que toutes leurs idéologies sont parfaitement logiques, la confrontation entre elles ne prend pas fin et menace la paix humaine.

Le travail littéraire de Saint Exupéry, qui assimilait comportement à écriture, était une nouvelle conscience de la langue. Par conséquent, le problème linguistique qui constitue la base de la littérature a toujours été soulevé comme une conscience de vérité ou de simplification dans le cas de Saint-Exupéry. La langue n'est pas simplement un moyen d'expression, et l'écriture par la langue ne se révèle pas simplement. Parler la langue, ce n'est pas parler de soi, mais il s'agit de faire entrer la langue dans le monde de la réflexion, puis de se laisser aller au fond de l'histoire. Ce faisant, Saint-Exupéry, qui remplit son devoir d'aviateur-écrivain, propose la création d'une nouvelle langue capable de supporter la douleur humaine d'aujourd'hui.

MOT-CLÉ Saint-Exupéry, action, écriture, langue, vérité